

물 풍부한 달 남극 선점 경쟁 불 붙었다

우주 진출 교두보 역할 기대

미·중·러·인도 등 각국 도전장

러 탐사선 '루나 25호' 추락 실패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 각국이 달의 새로운 잠재력에 주목해 잇따라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지역은 다량의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큰 달의 남극 지역으로, 인류의 심(深) 우주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이 있다면 식수와 산소는 물론 로켓 연료로 쓸 수 있는 수소를 현지 조달할 수 있어 화성과 태양계 외행성 유인 탐사의 난도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게 과학계 판단이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는 달의 남극을 조사하기 위해 떠난 무인달탐사선 '루나 25호'(루나-25)가

달 표면에 추락해 완전히 파괴됐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스코스모스는 "초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계산된 수치와 실제 충격량 변수 간의 편차 때문에 루나-25 우주선이 계산되지 않은 궤도로 진입했고, 달 표면에 충돌한 결과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로스코스모스는 지난 16일 자국 무인 달 탐사선 '루나 25호'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1일 극동 아무르주에서 소유스 로켓에 실려 발사된 이 탐사선은 21일 달 남극 표면의 보구슬라우스키 분화구 북쪽에 착륙해 달 내부 구조 연구, 물을 비롯한 자원 탐사 등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었다.

로스코스모스는 그러나 달 착륙을 이틀 남긴 상황에서 루나-25에 이상이 발생했다면서 "궤도 진입 명령을 내렸으나 작업 중 탐사선에 비상 상황이 발생해 정해진 조건대로 기동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가 달 탐사를 시도한 것은 옛 소련 시절인 지난 1976년 이후 47년 만이다.

러시아 다음으로는 인도가 지난달 14일 인도가 발사한 무인 탐사선 '찬드라얀 3호'도 오는 23일 달 남극 지역 착륙을 시도할 예정이다.

만약 찬드라얀 3호가 착륙에 성공한다면 달 남극 지역에 처음으로 인류의 손길이 닿는 새로운 이정표가 선다. 미국과 중국도 조만간 이 지역에 탐사선을 보낼 계획이다.

중국은 2024년 달 남극을 탐사하는 '창어' 6, 7호를 발사하기로 했다. 또 2027년 창어 8호를 쏘아 올려 2030년 이후를 목표로 달 남극 기지 건설을 위한 구조 시험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 우주비행사들을 달의 남극에 착륙시켜 탐사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미국은 또 내년에는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오리온 캡슐이 달 궤도를 돌아 지구로 귀환하는 유인 비행도 시도된다. /연합뉴스



니제르 군중 쿠데타 지지 시위 니제르와 러시아 국기를 든 니제르 군중 수천 명이 20일(현지시간) 수도 니아메에서 쿠데타 군부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8일 서아프리카 15개국 연합체인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가 니제르에 대한 군사 개입 준비를 마쳤다고 밝힌 가운데 시위대는 이날 '개입 중단'과 '제재 반대'를 외쳤다. /연합뉴스

美 캘리포니아주 열대성 폭풍에 지진까지 겹쳐 '긴장'

오하이오에서 규모 5.1 지진 발생

허리케인 '힐러리' 덮쳐 물폭탄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20일(현지시간) 열대성 폭풍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규모 5.1의 지진까지 발생해 이 일대 주민 2000만여명이 불안에 떨었다.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1분께 로스앤젤레스(LA) 북서쪽에 있는 도시 오하이오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

USGS는 당초 이 지진의 규모를 5.0으로 알렸다가 곧 5.1로 수정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이 지진에 따른 쓰나미 발생 위험은 없는 상태다.

지진은 오하이오에서 남동쪽으로 약 7km 떨어진 지점으로, 북위 34.41도, 서경 119.18도이며 진원의 깊이는 14.6km다.

진앙의 위치는 인구 380만명의 대도시 LA에서 94.9km 떨어진 곳이다.

아직 보고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USGS는 지진 발생 지점과 가까운 오하이오와 벤투라의 6만 8000명이 '보통' 수준의 진동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USGS의 지진 강도 분류에서 '보통' 수준의 진동은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접시와 창문이 깨지거나 불안정한 물체가 쓰러질 수 있는 정도다.

오하이오가 속해 있는 벤투라 카운티 비상관리국은 "현재까지 즉각적인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지진이 벤투라 카운티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느껴졌다"고 웹사이트에서 밝혔다.

USGS는 이 지진의 진동이 LA 카운티와 샌디에이고에 이르기까지 약 2106만 8000명에게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20일(현지시간) 열대성 폭풍 '힐러리'의 영향권에 든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에서 운전자들이 차 오르는 물에 차량을 두고 대피하고 있다. 미 기상청(NWS)은 이날 힐러리가 폭우를 동반해 국지적으로 돌발성 홍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또 진원지인 오하이오에서는 첫 지진이 발생한 뒤 약 1시간 동안 규모 2.7~3.9 사이의 여진이 11차례 더 발생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이들 도시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는 열대성 폭풍 '힐러리' 상륙에 따른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여서 주민들의 우려를 키웠다.

다만 지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날 오하이오에서 발생한 지진이 열대성 폭풍 힐러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LA타임스에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는 힐러리의 영향으로 이날 오전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다.

국립허리케인센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 열대성 폭풍이 상륙한 것은 1997년 '노라' 이후 26년 만이다. 다만 당시 폭풍은 상륙 직후 기세가 약해져 별 피해 없이 지나갔다.

캘리포니아에 큰 피해를 냈던 열대성 폭풍은 1939년에 발생한 것으로,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홍수로 45명이 사망하고 바다에서 선박 등이 전복돼 48명이 숨졌다.

이번 폭풍우는 1939년의 열대성 폭풍 이후 84년 만에 가장 강력한 폭풍우로 관측돼 당국과 주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캐나다 전역 산불 확산 '통제불능'

뉴욕주 면적 해당 14만km² 태워

캐나다 서부에서도 산불이 겹잡을 수 없이 확산,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쥘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20일 산불로 인해 3만 5000명을 대상으로 대피령이 내려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산불이 통제 불능 상태로 내륙을 관통하며 급속히 확산하자 지난 18일 비상 상태가 선포됐다.

3만 5000명을 대상으로 대피령이 내려진 데 이어 3만명이 대피 경보를 받았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기존 산불은 순식간에 확산하면서 진압을 어렵게 하고 있고, 여기에 곳곳에서 새로운 산불이 생겨나고 있다.

미국 국경에 가까운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웨스트켈로나에서는 지난 수일간 화마가 맹위를 떨치며 마을 근처 언덕과 산을 불태우고 있다.

데이비드 이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총리는 소

방관과 이재민을 수용할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의 필요하지 않은 여행을 금지했다.

당국은 화재 지역으로의 여행을 피하고 소방관들의 진화 작업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드론을 날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북극해에 인접한 노스웨스트 준주도 지난 15일 산불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전 주민 2만명을 대상으로 대피령을 발령했다.

대피령이 내려진 후 주민들이 자동차와 비행기를 이용해 대피에 나서면서 도시가 사실상 유령 도시가 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아직 구급대와 소방관, 수도·전기 등 공공 서비스 직원과 경찰관을 포함해 약 2600명의 주민이 마을에 남아있으며 대피를 거부한 주민도 있는 상황이다.

산불은 캐나다 전역에서 뉴욕주 전체 면적에 해당하는 14만km를 태웠다.

이번 산불로 연방정부는 물론, 13개국의 지원이 이어졌으며, 최소 4명의 소방관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가운데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예보돼 산불 진압에 난항이 우려된다. /연합뉴스

덴마크·네덜란드, 우크라이나에 전투기 지원

젤렌스키 방문 맞춰 공동성명

주말 동안 깜짝 유럽 순방에 나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네덜란드와 덴마크로부터 F-16 전투기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정부는 2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는 F-16 전투기 이전을 위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 미국 및 다른 파트너국들과 긴

밀한 협력하에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투기 제공을 위한 조건에는 F-16을 조종할 우크라이나 인력의 성공적 선발·훈련 등이 포함된다

라고 양국은 전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네덜란드와 덴마크 방문에 맞춰 발표된 것으로,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첫 사례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